



제89회 춘향제가 8일 춘향선발대회를 시작으로 웅장하게 출발하며, 많은 관객들을 축제장으로 불러 들였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춘향제의 춘향제향.

봄날의 아름다운 꿈이야기 '춘몽'

오늘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춘향제 개막공연·불꽃놀이·춘향제향 등 다양한 행사 열려

제89회 춘향제가 8일 춘향선발대회를 시작으로 웅장하게 출발하며,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축제장으로 불러 들였다. 축제 이틀째를 맞은 오늘은 광한루원 특설무대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제관들로 구성된 춘향을 가리는 춘향제향이 시작되며,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는 개막공연, 불꽃놀이, 춘향제향, 번사극 춘향전, 춘향제 오페라 뮤지컬 갈라 콘서트, 퓨전국악밴드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린다. 이날 백미는 밤 7시30분부터 9시까지 펼쳐지

는 개막공연 춘몽(春夢)으로, 자유로운 봄날의 꿈처럼 차별 없는 화합의 잔치에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하고 싶은 관객들을 기다리며, 신관사또 생일잔치를 주제로 광한루원 특설무대에 완월장에서 4개 마당이 펼쳐진다. 첫 마당은 길놀이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이 광한루원을 돌며 신관사또 부임행차 행렬을 재연하며 개막공연의 흥을 북돋우고, 두 번째 마당 열음에서는 방자를 데리고 광한루원에 구경 나온 이도령이 경치를 보고 읊은 적성가(赤城歌)를 춘향제 제전위원장인 안숙선 명창이

소리로 개막공연 춘몽(春夢)의 시작을 알린다. 세 번째 놀이마당은 신관사또의 기생점고(妓生點考)에 이어 안숙선 명창과 육중 춘향의 숙대머리, 사랑가(나비춤)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국립민속국악원의 무고(舞鼓), 팀브라더스의 저글링, 라스트포원의 비보이, 남창동 줄타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가 연출되며, 네 번째 마당 풀이(맞춤)에서는 신관사또의 약행을 응징하는 어사출도, 국립민속국악원의 라이브 연주와 불꽃놀이를 끝으로 화려한 막을 내린다. /남일=김기두 기자

정읍시립합창단, 14일 정기공연

올해 상반기 정읍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에 정읍시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정기공연에서는 '봄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봄날에 어울리는 따스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봄 내음 나는 곡들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합창단은 '꽃 구름속에', '그대가 꽃이라면' 등 15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무지가 까메라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특별 초청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협연도 펼쳐진다.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충족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립합창단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에 정읍시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전주대 이재운 교수, 문화재청 부위원장 위촉

전주대학교 이재운 교수(역사문화콘텐츠학과)가 제29대 문화재위원회(문화재위원 75명, 문화재 전문위원 193명) 부위원장과 사적분과 위원장에 위촉됐다. 이재운 교수는 2019년 5



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2년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45년 구황실사무청을 모태로 1961년 문화재관리국을 거쳐, 1999년 문화재청으로 승격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유산으로 여는 희망과 풍요의 미래를 모토로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사단법인 들레가 주관하는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이 지난날 30일 연지아트홀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마쳤다.

소리꾼 오정해 본연의 매력 '뽀뽀'

들레 주관,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 성료

사단법인 들레가 주관하는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이 지난날 30일 연지아트홀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마쳤다.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은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토크 콘서트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고민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30일 공연은 '농담(弄談)'의 취지에 맞춰 화작(火作)과 화작(花作)에 대한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화작(火作)은 정읍소방서 김종수 서장과 김길남, 이영경 반장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소방관의 업무에 대한 고충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다시금 일깨웠다. 이어진 화작(花作)에서는 가수 변진섭이 출연해 꽃 이야기와 봄에 어울리는 사랑 노래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지역의 공직자이자 시민인 정읍소방서 소방관이 출연자로 등장해 최근 이슈인 소방안전 관련 이야기를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전달해 주목받았다.

또 사회자 오정해는 이날 공연을 마무리하며 '홀로 아리랑'을 열창해 소리꾼 오정해 본연의 매력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오정해는 이날 진행과 노래를 넘나들며 팔색조의 매력을 뽐내 다음 달 28일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다음 공연은 새로이 선보이는 토크 콘서트 '온라인 주문'을 통해 가족, 친구, 연인에게 영상편지를 보내는 시간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달 3일부터 사단법인 들레 홈페이지(dulle.or.kr)를 통해 시민들의 사연을 공모하고 있다. 티켓은 오는 14일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1만원, 정읍시민 30% 할인에서 예매할 수 있다. 안수용 이사장은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단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